



# 소방활동 일일상황

- 2020. 4. 23.(목) 06:00 -



| 구분        | 기상개황             | 기상 전망 등   |  |
|-----------|------------------|---|--|
| 오늘<br>(목) | 영서<br>☁ 1°C/13°C | ❖ 기상특보사항(4.23. 04:00 발표/08:00 발효)<br>○ 건조주의보 : 평지(삼척,동해,강릉,양양,고성,속초)<br>○ 풍랑주의보 : 동해중부먼바다 |  |
|           | 영동<br>☀ 5°C/16°C |   |  |
| 내일<br>(금) | 영서<br>☀ 0°C/16°C |   |  |
|           | 영동<br>☀ 6°C/20°C |   |  |

## 주요 소방 활동

- (화재)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불」
  - ▶ 4. 22.(수) 13:48, 원인 조사 중(기도원 뒤 폐목재 발화), 임야 0.3ha 소실
- (화재) 인제군 인제읍 가야리 「산불」
  - ▶ 4. 22.(수) 14:21, 화목보일러 연통 불티 비화 추정, 임야 0.2ha 소실
- (구조)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 도로상 「교통사고」
  - ▶ 4. 22.(수) 10:13, 시내버스 대 25톤 트럭 충돌사고, 경상(남/54), 구조 후 병원이송  
↳ 버스승객 : 없음, 운전자 1명(미이송/양호)
- (구조)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8부 능선) 「산악사고」 ※ 1항공대 헬기구조
  - ▶ 4. 22.(수) 14:51, 하산 중 우측발목 부상, 경상(여/55), 구조 후 병원이송

## 【 야 간 】

- (화재)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6번국도상 「차량」
  - ▶ 4. 22.(수) 16:44, 마찰열(뒷바퀴 라이닝 과열)추정, 5톤 트럭(2004년) 뒷바퀴 소실
- (구조) 삼척시 도계읍 흥정리 「교통사고」
  - ▶ 4. 22.(수) 20:08, 보행자 운전석 앞바퀴에 깔림, 구조(여/64/중상) 후 이송

## 소방활동 통계

- 화 재 : 8건,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55만원
- 구 조 : 34건 11명 구조
  - ❖ 인명구조 : 17건(산악2건/1명, 교통4건/4명, 갇힘5건/2명, 수난0건/0명, 기타6건/4명)
  - ❖ 생활안전 : 17건(동물구조 16, 별집제거 0, 급수지원 1)  
↳ 돼지열병 방역 급수지원 : 1회 3톤(인제) / 누계 839회 3,657톤
- 구 급 : 155건(질병, 교통사고 등) 162명 응급처치·이송
  - ❖ 코로나19 : 신고6건(누계366건), 상담0건(누계29건), 이송6건(누계337건 / 확진26명)

- 의료정보제공 : 52건(의료지도 0, 병의원안내 12, 약국안내 2, 기타 38)
- 119신고접수 : 772건
- 타 기관 이첩 : 14건<권익위 0, 타시도 14, 경찰 0, 해경 0>, 누계 26,190건<통합이후>

## 언론보도 주요사항 등

- (동정)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 경형사다리차 시연회 참석 (강원도민일보)
- 날아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강원 전역 강풍 피해 10건 (뉴스1)
  - ▶ 강원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안내판이 날아가거나 전선에 소나무가 걸리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 22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총 10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간판 파손 3건, 주택 차광막 1건, 기타 6건이다.
-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든 알리 ‘LG의인상’ (강원도민일보 등)
  - ▶ 원룸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28·사진)씨(본지 4월22일자 1면 등)에게 ‘LG의인상’이 수여된다.LG복지재단은 22일 “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알리씨의 의로운 행동으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알리씨의 ‘LG 의인상’ 수상은 지난 2017년 스리랑카 국적 니말씨에 이어 두 번째 외국인 수상이다.당시 니말 씨는 수상 이후 법무부로부터 영주권을 받은 만큼 알리씨도 이번 수상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상당한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생략)
- 강풍특보 건조특보 속 강릉·인제서 잇따라 산불·산림 5천㎡ 소실 (강원일보 등)
  - ▶ 강풍특보와 건조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22일 강릉과 인제에서 잇따라 산불이 나 산림 5천㎡가 소실됐다. 이날 오후 1시48분께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3ha를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7대, 진화차 3대,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장에는 초속 9.8m의 강한 바람이 불었으나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2시21분께는 인제군 인제읍 가야리 인근 국유림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
- 밤사이 흥천 주택에서 불..30대 남성 연기 흡입 (춘천MBC)
  - ▶ 오늘 새벽 2시 50분쯤, 흥천군 서석면 청량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여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9살 김 모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택 내부 148제곱미터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